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 원리

Principles of Child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Child Education Books

김 향 은*
Kim, Hyang Eu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rinciples of child education in such traditional Korean child education books as "So Hak", "Dong Mong Sun Seup", "Kyuk Mong Yo Kyul", and "Sa So Goel".

Principles of child education presented in those traditional Korean child education books can be identified as (1) modeling and identification, (2)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behavior, (3) spontaneity of learning, (4) learning by doing, (5) early education with consideration of critical periods, and (6) individualization.

From thos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traditional Korean child education (1) emphasizes learner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of child development, (2) gives good guidance to significant adults around children, and (3) suggests implications to modern child education practices which are mainly concerned with knowledge and function.

I. 연구의 문제

한말 이후 서구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것은 무조건 낡고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왔다. 인간의 발달 과정을 탐구한다는 아동학도 발달이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을 떠나서는 연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가치전제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정보를 채우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와서 학문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고, 우리의 삶과 현실에 기초한 이론 정립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혜정, 1992, 1994; 정옥분, 1994; 김광웅, 1995). 서구의 학계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근대론(脫近代論)'을 제기하고, 서구학문의 위치를 서구문화의 역사 속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에 한정시키며, 다가를 미래사회의 문제를 서양의 세계관이 아닌 동양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풀어가 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유가효, 1995).

차체에 우리 고유의 독자적인 지식 체계와 이론의 구축을 통해 학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외시해 온 우리의 전통 아동학을 규명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전통사회¹⁾의 아동교육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이라 하면 다양한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온 교육활동 전반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교육방법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에 동몽교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몇 가지 대표적인 아동 수신서(修身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교육의 원리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분석의 관점

교육의 원리란 교육방법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교육의 주체에 따라 교수의 원리와 학습의 원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를 교사로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교수의 원리라면, 학습의 원리는 아동을 교육의 주체로 보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일컬어 교육의 원리라고 하지만, 이 외에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발달의 원리도 교

육의 원리속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방법과 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교수의 원리
 - 시범: 모범의 원리
 - 통합: 지행일치의 원리
 - 흥미: 동기유발의 원리
- (2) 학습의 원리
 - 모방: 동일시의 원리
 - 직관: 경험의 원리
 - 자발성: 능동적 학습의 원리
- (3) 발달의 원리
 - 순서와 방향: 단계적 학습의 원리
 - 결정적 시기: 조기교육의 원리
 - 개인차: 개별화의 원리

(1) 교수의 원리

① 시범: 모범의 원리

시범의 원리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 방법이다. 즉, 교사가 술선수범하는 태도로 모범을 보이거나 본받을 만한 위인들의 일화와 언행을 소개함으로써, 모방과 동일시를 통한 학습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바로 시범과 모범의 원리이다.

② 통합: 지행일치의 원리

통합의 원리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지식이나 기능 어느 한쪽의 능력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知)·덕(德)·체(體) 또는 지(知)·정(情)·의(意)와 같은 전인적(全人的)인 특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교육의 원리이다(임창재, 1994).

1) 전통사회에 대한 시대적 규정은 조선시대로 한정한다.

③ 흥미: 동기유발의 원리

흥미의 원리는 학습자가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다(임창재, 1994). 이 원리는 곧 아동의 흥미나 관심에 기초하여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욕을 북돋아주는 동기유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 학습의 원리

① 모방: 동일시의 원리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등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단순히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모델의 정서와 가치, 태도까지도 내면화하는 동일시 또는 모델링(모형학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이성진, 1983).

② 직관: 경험의 원리

직관의 원리·경험의 원리는 한마디로 행하면서 배우도록(learning by doing) 하는 교육 원리이다. 이는 서적이나 문자를 통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간접적인 학습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 추상적·형식적 사고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이승익, 1976; 홍우홍 역, 1988)

③ 자발성: 능동적 학습의 원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외적인 것일 때보다 내적인 것일 때 주체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김경식, 1988)는 사실을 바탕으로 배우는 이가 학습활동에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원리가 자발성, 자기활동의 원리이다(호재숙 등, 1989).

(3) 발달의 원리

① 순서와 방향: 단계적 학습의 원리

발달에는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이 있다. 이와 같은 원리에 기초하여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것으로’, ‘쉬운 것을 거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관에서 이성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교육 방법(유태영·김정규, 1982)이 곧 단계적 학습의 원리이다.

② 결정적 시기: 조기교육의 원리

인간에게는 특정 현상을 습득하는 민감한 시기 즉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가 있으며, 제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인생의 초기라는 점(조복희 등, 1989)에 입각하여,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강조하는 원리가 바로 조기교육의 원리이다.

③ 개인차: 개별화의 원리

발달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순서가 있지만 개개인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성연 역, 1991). 개별화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한 것으로 아동 개인의 자질과 적성, 준비도를 감안한 교육원리이다.

Ⅲ. 교재의 분석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서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문자교재(文字教材)와 유교교재(儒敎教材)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자교재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데 주목적을 둔 교재로 본격적인 유교교육에 앞서 사용해 왔는데, 중국에서 전래된 「千字文」을 모방한 千字文類와, 생활주변의 사물을 비스무리한 것끼리 한

데 모은 類合字會類가 있다. 천자문류에는 「石峰千字文」, 「光州千字文」, 「詳解千字文」 등이 있으며, 기초적인 상용한자와 함께 자연의 이치나 고사(故事)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류합자회류에는 「訓蒙字會」, 「類合」, 「新增類合」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身體), 기명(器皿), 조수(鳥獸), 초목(草木) 등 사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통해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유학교재는 문장의 형식을 갖추어 문리(文理)를 터득시키고 인격형성에 필요한 기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유교적 인생관과 우주관을 담은 윤리 이론서와 예절 교육을 바탕으로 유교이론의 실천을 강조한 윤리 실천서로 구분된다(유점숙, 1994). 철학서에 해당하는 윤리 이론서에는 「兒戲原覽」, 「蒙諭篇」, 「啓蒙篇」 등이 있으며, 수신서에 해당하는 윤리 실천서에는 「小學」, 「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養正篇」, 「警民篇」 등이 있다. 당시 아동교육서의 대다수가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전통 아동교육은 예(禮)의 실천을 강조한 윤리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전통 사회의 아동교육을 대변하는 아동 수신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재로 손꼽히는 「小學」, 「童蒙先習」, 「士小節」, 「擊蒙要訣」을 대상으로 전통 아동교육의 원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小學」

「소학」은 1187년 중국의 남송대(南宋代)에 주자학의 집성자인 주희(朱熹)가 편찬한 유교교육서로, 내편 4권(入教, 明倫, 敬身, 稽古)과 외편 2권(嘉言, 善行)의 전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편에서는 한대(漢代) 이전의 문헌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를 입교, 명륜, 경신편

에, 그리고 성현의 언행을 들어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음을 계고편에 실고 있다. 한편 가언과 선행으로 이루어진 외편에서는 주로 송(宋)나라 사대부(士大夫)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입교, 명륜, 경신의 마음을 부단히 체득하면 인격이 완성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고려 말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유교를 국시로 한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당대의 사상교과서로 채택되어 유교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수신서(修身書)로 널리 권장되어 왔다.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원리를 앞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의 원리

① 시범: 모범의 원리

「소학」에서는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주변 인물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여러 어머니나 그밖에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공경하며 신중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가려서 아이의 스승이 되게 한다.”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어린 아이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 야 하며, 설 때에는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며,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게 해야 한다” 하였다. 〈入教篇〉

사람이 안에 현명한 부형(父兄)이 없고, 밖에 엄격한 스승과 벗이 없이는 능히 성취하는 자가 드물다. 〈善行篇〉

맹가(孟軻) 어머니의 집은 무덤에 가까웠다. 맹자가 어렸을 때 놀이하는 것이 뽕 따는 일

을 흉내내어 뛰며, 쌓으며, 묻으며 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는 아들을 살게 할 곳이 못된다.” 하고 그곳을 떠나서 시장(市場)에 집을 정했다. 이번에는 장사꾼 물건 파는 놀이를 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도 아들을 살게 할 곳이 못된다.” 하고 다시 학궁(學宮) 곁으로 집을 옮겼다. 비로소 제기(祭器)를 벌려 놓고 읍(揖)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놀이를 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는 참으로 아들을 살게 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그곳에서 살았다.

맹자가 어릴 때 묻기를, “동쪽 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은 무엇하려는 것입니까?” 하니, 어머니가 농(弄)으로 말하기를, “너를 먹이려는 것이다” 했다. 그러나 곧 뉘우치고 말하기를, “나는 태교(胎教)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바야흐로 지각(知覺)이 나려고 하는데 이를 속인다면 이것은 불신(不信)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곧 돼지고기를 사서 먹였다. <稽古篇>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소학」에서는 부모, 형제, 스승과 같은 주변 인물의 모범된 행실과 나아가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가 교육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통합:지행일치의 원리

배움은 곧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통합의 원리를 「소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글 읽는 자가 왕왕(往往) 옛날과 지금의 시의(時宜)를 달리한다고 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은 마땅히 처음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書題>

안씨 가훈에 말하기를 “대저 글을 읽어 학문에 종사하는 것은 본래 폐색(閉塞)된 마음을 열고 사물을 관찰하는 눈을 밝게 하여 행실에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글을 읽되 다만 말만 할 뿐 능히 실행하지 못하니, …또 수십권의 글을 읽고서 문득 높고 큰 체하여 어른을 업신여겨 소홀히 하며, 동배(同輩)를 가볍게 보아 업신여기니, …이와 같다면 배움으로써 이익됨을 구하려는 것이 이제 도리어 스스로에게 손실을 가져오니 배움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대체로 「논어」, 「맹자」를 읽을 때에는 모름지기 숙독(熟讀)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 성인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몸가짐에 절실(切實)하게 할 것이며, 단지 한바탕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嘉言篇>

당(唐)나라 양성(陽城)이 국자사업(國子司業)이 되었을 때 여러 학생을 불러서 말하기를 “무릇 배운다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 학생 중에 오래도록 아버이를 귀성(歸省)하지 않은 자가 자가 있는가?” 하였는데, 이튿날 왕에게 고(告)하고 돌아가 아버이를 봉양하는 자가 20명이었다. 3년이 되도록 돌아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이를 내쫓아 버렸다. <善行篇>

이상과 같은 교육내용을 통해 이론적인 궁리보다도 올바른 행위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한 교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③ 흥미:동기유발의 원리

한편 「소학」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천(伊川) 정선생(鄭先生)이 말하기를, “사람을 가르치되 뜻과 취지를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노래와 춤을 가르칠 것이다. …따로 시를 짓

고자 하거든 어린이들에게 물 뿌려 소제(掃除)하고, 남에게 응대(應對)하며, 어른 섬기는 예절(禮節)을 대략 가르쳐서, 아침 저녁으로 노래하게 한다면 도움됨이 있을 것 같다” 하였다. 〈嘉言篇〉

즉,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통해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히도록 하고 있다.

(2) 학습의 원리

① 모방: 동일시의 원리

「소학」에서는 선하고 어진 인물들의 행실을 좇아서 배우도록 하는 모방학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자직(弟子職)」에 말하기를, “스승이 가르치면 제자는 이것을 본받으며,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로서 마음을 겸허(謙虛)하게 가지고 배운 것을 극진히 해야 한다. 선한 것을 보면 그것을 좇고, 의로운 것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入教篇〉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문을 강론(講論)하는 일로 벗을 모으고, 벗의 선한 것을 본받아서 내 인덕(仁德)을 보탠다”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 대부(大夫)의 현명한 이를 섬기고, 그 나라 선비의 어진 이를 벗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유익(有益)한 벗이 세가지 있고, 해로운 벗이 세가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문견(聞見)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고, 겉치레만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남에게 야침을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말만 잘하고 견문의 실지가 없는 사람

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明倫篇〉

대체로 선배들이 하는 일은 주밀(周密)하고 자상하며, 후배들이 하는 일은 빠뜨리고 소략(疎略)함이 많다.

「논어」를 읽는 자가 만일 제자가 물은 것을 곧 자신이 물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인(聖人)이 대답한 것을 곧 오늘날 자신의 귀로 들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연히 언음이 있을 것이다. 〈嘉言篇〉

이처럼 「소학」에서는 벗, 선배, 스승, 성인, 군자로부터 배울 만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힘써 본받도록 하는 모방의 원리를 중요한 학습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② 직관: 경험의 원리

직관의 교육 원리가 적용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소학에서는 사람들에게 물 뿌려 소제(掃除)하는 일, 남의 말에 응대 하는 법, 몸가짐의 절도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며,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書題〉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 말하기를...오늘 한가지 일을 행하고 내일 한가지 어려운 일을 행함을 오래 계속하면 마음이 저절로 견고(堅固)하게 될 것이다. 〈嘉言篇〉

이와 같은 내용은 일을 통해 배우는 직접 경험 곧 체험의 교육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③ 자발성: 능동적 학습의 원리

한편 자발성의 학습 원리가 제시된 부분을 찾아보면,

대체로 지도(指導)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스승이 할 일이고, 행실이 착하지 못함이 있으면 바로잡아 경계하는 것은 벗의 임무이나, 뜻을 결정하여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 힘으로 해야 하니, 다른 사람에게 의존(依存)하기 어렵다.

〈嘉言篇〉

라고 하여, 배움에 있어서는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발달의 원리

① 순서와 방향: 단계적 학습의 원리

「소학」에서는 발달의 순서와 방향을 고려하여 가깝고 쉬운 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멀고 어려운 일에 다다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 원리가 적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제(子弟)된 자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에게 공손하며, 근신(謹愼)하고 믿음이 있으며, 널리 못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어진 사람을 친애(親愛)한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곧 글을 배워야 한다” 하였다. 〈入教篇〉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어버이 섬기는 것을 효도로 하는 까닭에 그것을 옮겨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형 섬기는 것을 공경으로 하는 까닭에 그것을 옮겨서 어른에게 공순(恭順)하며, 집에 있어서는 집을 잘 정제(整齊)하는 까닭에 그것을 옮겨서 관청 일을 수행(遂行)한다. 이로써 행실이 안에서 이루어져 이름이 후세(後世)에 남는다” 하였다.

증자가 말하기를, “어버이가 기뻐하지 않으면 감히 외인(外人)과 사귀지 못하며, 친근한 사람이 친해지지 않으면 감히 소원(疏遠)한 자와 친하기를 구(求)하지 못하며,

작은 일을 행하지 못하면 감히 큰 일을 말하지 못한다.” 〈明倫篇〉

명도(明道) 선생이 사람을 가르치시되, 사물의 이치를 미루어 지식을 밝히는 데(致知)에서 시작하여, 지극히 선한 데 머무를 줄 아는 것(知止)에 이르고, 뜻을 정성되게 하는 데(誠意)에서 시작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데(平天下) 이르며, 쇄소용대(灑掃應對)의 「소학」의 가르침에서부터 궁리진성(窮理盡性)의 「대학」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례가 있었다. 세속의 배우는 자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에 달려가며 낮은 데 있으면서 높은 곳을 엿보기 때문에, 경솔하게 스스로 큰 체 하지만 마침내 얻음이 없는 것을 병폐(病弊)로 여겼다. 〈善行篇〉

② 결정적 시기: 조기 교육의 원리

「소학」에서는 생의 초기를 학습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다음과 같이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나이 어린 때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성장하고, 교화(教化)가 마음에 젖어서 선악(善惡)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하여, 사심(私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근심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書題〉

「열녀전(烈女傳)」에 말하기를 “옛날에는 부인이 아기를 배면, 잠잘 때 몸을 기울게 하지 않으며, 앓을 때 한쪽이 치우치게 하지 않으며, 설 때 한쪽 발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맛이 정상(正常)이 아닌 것을 먹지 않으며, 벤 곳이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눈으로는 사악(邪惡)한 빛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밤에는 소경을 시켜 시(詩)를 외우고 바른 일을 이야기하게 했다”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아들을 낳으면 형용(形容)이 단정하고 새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한다. 〈入教篇〉

이천(伊川)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때는 아직 주견이 없으니 마땅히 격언과 지론을 날마다 그의 앞에 늘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컷 들어서 귀에 배면 오랜 뒤에는 저절로 버릇이 되어 본디부터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록 다른 말로 유혹하더라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릴 때 이렇게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매 편벽과 사욕이 안에서 생기고 못사람의 밖에서 유혹하게 되리니, 그때에는 제아무리 순수하려 해도 될 수가 없다.

횡거(橫渠) 장선생(張先生)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먼저 안정(安靜)하고, 자상하고, 공손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학문을 강구(講究)하지 않아서, 남녀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태만하여 행실이 나쁘고, 장성하면 더욱 흉악하고 사나워진다. 일찍이 자제(子弟)로서의 할 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벌써 남과 나의 관념(觀念)이 있어서 몸을 굽혀서 낮추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교만하고 태만한 병의 뿌리가 항상 남아 있고 또 환경에 따라 자라나니, 죽기에 이르기까지도 예전과 다름없게 된다. 〈嘉言篇〉”

다른 교육서들 역시 초기경험과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학」은 그 시작을 태교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조기교육의 원리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③ 개인차: 개별화의 원리

한편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지도의 방침이 적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명도(明道) 정선생(程先生)이 말하기를,

“자제가 준수(俊秀)하나 경박한 것을 근심하는 자는 다만 경서(經書)를 배워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가르칠 뿐, 글짓는 일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 글씨 익히고 편지 쓰는 것은 선비의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줄곧 그것만을 좋아하여 집착하면 또한 저절로 뜻을 잃게 된다.” 〈嘉言篇〉

2. 「童蒙先習」

「동몽선습」은 1541년 명종때의 유학자 박세무(朴世茂)가 지은 것으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다섯가지 도리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술해 놓은 책이다. 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운 뒤 「소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교양도서로서 오륜(五倫)을 쉽게 해설하여 생활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훗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은 발문(跋文)을 지어 「동몽선습」이 아동교재로서 적절하고 유익한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영조(英祖)임금도 손수 서문(序文)을 써서 이 책의 우수성을 찬양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부지런히 익힐 것을 독려하였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교육의 원리는 시범과 모방, 통합의 원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의 원리

① 시범: 모범의 원리

「동몽선습」에서는 오륜을 몸소 실천한 옛 성현들의 일화를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순(大舜)은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모질어서 항상 순을 죽이려 했으나, 순이 효도를 다하여 그 마음을 화락하게 하며, 점점 선(善)의 길로 인도하여 서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효자의 도리가 지극한 데 이른 것이다. 〈父子有親篇〉

상(商)나라의 주왕(紂王)이 포악했는데, 비간(比干)이 간(諫)하다가 죽었으니, 충신의 절개가 이에서 다했다. 〈君臣有義篇〉

극결(卻缺)이 밭에 나가서 김낼 때 그의 아내가 점심밥 대접하기를 공경히 하여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했는데, 부부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夫婦有別篇〉

사마광(司馬光)은 그 형 백강(伯康)과 우애가 매우 도타워서 공경하기를 아버지 같이 하고, 보호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했는데, 형제의 도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長幼有序篇〉

안자(晏子)는 남과 사귀에 있어서 오래도록 서로 공경하였는데, 벗 사이의 도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朋友有信篇〉

이와 같은 모델 제시의 방법을 통해 책을 접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힘써 본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② 통합의 원리: 지행일치의 원리

학문은 곧 몸과 마음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통합의 원리가 제시된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문의 길은 다름 아니라, 예와 고금(古今)의 일에 통하고 사물(事物)의 이치에 통달하여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몸에 본받고자 하는 것이니, 〈總論篇〉

(2) 학습의 원리

① 모방: 동일시의 원리

한편 배우는 이의 자세로서 단정하고 덕 있는 벗을 취해 그 훌륭한 면모를 본받도록 하는 학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벗이란 그 덕(德)을 벗하는 것이다...이런 까닭에 벗을 취함은 반드시 단정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벗을 택함은 반드시 나보다 나은 자로 하여야 한다. 〈朋友有信篇〉

3. 「擊蒙要訣」

「격몽요결」은 1577년 울곡(栗谷) 이이(李珥)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제자를 가르치는 틈틈이 아동계몽을 위해 집필한 교양도서로, 모두 38권으로 되어 있는 「栗谷全書」 중 제27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름 그대로 어리석고 어두운 점을 없애 버리는 요긴한 비결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리학에 입문하는 기반을 잡아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책이다.

「격몽요결」은 〈立志章〉, 〈革舊章〉, 〈持身章〉, 〈讀書章〉, 〈事親章〉, 〈喪制章〉, 〈祭禮章〉, 〈居家章〉, 〈接人章〉, 〈處世章〉 등 전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유안진, 1990).

여기에 나타난 주된 교육의 원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교수의 원리

① 통합: 지행일치의 원리

「격몽요결」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행일치의 교육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학문의 진정한 가치는 실천궁행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학문이란 무엇이나? 이것은 다만 남의 아버

가 된 자는 그 아들을 사랑할 것, 자식된 자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남의 신하된 자는 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 부부간에는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할 것, 형제간에는 의당 우애가 있어야 할 것, 나이 젊은 사람은 어른에게 공손히 해야 할 것, 친구 사이에는 믿음에 있어야 할 것 등이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행하는 행동 사이에서 모두 마땅한 것을 얻어서 행해야 할 것이고, 공연히 마음을 현묘(玄妙)한 곳으로 달려서 무슨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넘겨다 보지 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학문이 사람들의 날마다 행동하는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이것은 까마득히 높고 멀어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학문을 자기는 하지 못하고 남에게 밀어 맡겨 버리고서 자신은 스스로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序文〉

만일 내 뜻의 정성이 정말로 학문에 있다고 하면 어진 사람이 될 것은 정한 이치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보면 그 효력이 나타날 것인데 왜 이것을 남에게서 구하고 뒤에 하자고 기다리단 말인가? 〈立志章〉

대체 글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 놓고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본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만 글을 읽을 뿐 자기 마음으로는 이를 본받지 않고, 또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따로 있을 뿐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讀書章〉

(2) 학습의 원리

① 직관:경험의 원리
한편 「격몽요결」에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일로부터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학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날마다 쓰고 일해 나가는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사람이 보통 거처할 때 그 행동이 공경되고, 일을 하는 것이 공손스럽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충성되고 보면 이것이 바로 학문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해야 할 것이다. 〈持身章〉

(3) 발달의 원리

① 순서와 방향: 단계적 학습의 원리
발달의 순서와 방향을 고려하여 순차적인 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자주자주 언제나 구습(舊習)을 맹렬히 반성하는 것을 힘써서 마음에 한점이라도 구습에 더럽혀짐이 없게 한 뒤라야만 비로소 학문에 나아가 공부(工夫)를 할 수 있을 것이다. 〈革舊章〉

이와 같은 교육원리는 배움에도 먼저와 나중의 차례가 있어야 함을 밝힌 것으로, 쉽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서 어렵고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② 결정적 시기: 초기 교육의 원리
「격몽요결」에서는 또한 학습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자식을 낳아 자라서 조금 지식이 있게 되면 마땅히 착한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한다. 만일

어리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어린애가 장차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을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므로 착한 것을 가르치기란 몹시 힘들기 마련인 것이다. 〈居家章〉

4. 「士小節」

「사소절」은 1775년 조선 후기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실학자의 한사람이었던 이덕무(李德懋)가 지은 것으로, 당시 「소학」의 내용이 시대적·공간적으로 거리감이 많았기에 현실에 적합한 내용의 소절(小節)을 새로이 엮어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士典篇〉, 〈婦儀篇〉, 〈童規篇〉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전편〉에서는 전통사회의 남성의 역할을 性行, 言語, 服食, 動止, 謹身, 教習, 人倫, 交接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며, 〈부의편〉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性行, 言語, 服食, 動止, 教育, 人倫, 祭祀의 예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편 〈동규편〉에서는 動止, 教習, 敬長, 事物의 영역별로 어린이의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 「사소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생활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손직수, 1994).

「사소절」에 나타난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의 원리

① 시범: 모범의 원리

「사소절」에는 교육의 모든 원리가 고루 소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범과 모범의 원리가 특히 강조되어 있다.

정암(靜庵: 조광조)의 밝고 곧음과 퇴계(退溪: 이황)의 침착하고 근신함과 울곡(栗谷: 이이)의 자상하고 화평함과 중봉(重峯: 조헌)의 부지런하고 확고함은 유자(儒者)의

오뜸가는 표준이었다.

글을 읽고 몸을 닦는 데 만일 표준이 없으면 족히 그 효험을 보지 못한다. 강학(講學), 성찰(省察), 함양(涵養), 천리(踐履) 이것은 지행(知行)에 있어서 목표됨이 매우 중요하고 포괄된 바가 매우 넓다. 이것은 우암(尤庵: 송시열) 선생의 학문하는 방법이었다.

송(宋)나라 위섬지(魏撻之)는 남과 사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아름답게 여기고 잘못된 점을 구체해 주었다. 그리고 후진 중에 예절을 갖추어 오는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조그마한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이끌어 성취시켰다.

글을 읽어서 좋은 구절을 발견하거나 반드시 동지에게 기꺼이 알려 주되 행여 다 알려주지 못할까 염려하라. 효효재(嘒嘒齋) 김공(金公)은 머리가 하얀 노경에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가르쳐 주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총명한 소년을 만나면 반드시 쌓인 서책을 혼연히 펼치고 옛사람의 아름다운 일과 좋은 말을 찾아 내어 읊조리고 강론하는 등 끈덕지고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士典篇〉

어른이 아이들과 부담없이 해학하기를 좋아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므로 날로 어리석어 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글을 잘하고 재주가 있더라도 스승을 삼아서는 안된다.

사내아이가 과거(科擧) 공부하는 제생(諸生)들을 따라 문장 공부를 하게 되면,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언어가 범절이 없고 행동이 경솔해져 그대로 고질적인 습성이 되고 만다. 그것은 듣고 보는 것이 속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해서 자제로 하여금 과거 공부를 하게 한다면, 모름지기 근후(謹厚)하고 엄정(嚴正)한

선비를 따라 공부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 근신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릴 때부터 장성한 때까지 그 듣고 보는 것이 온통 부정하고 부당한 사람이라면, 혹시 옳은 일과 옳은 사람을 보더라도 도리어 해괴하게 생각할 것이다...그러므로 아이들을 훈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밝게 보아서 혹시라도 나쁜 것에 물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어른을 싫어하고 하류층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천하고 누추한 데 들어가기 쉽다. 하인과 놀던 어린애는 비록 장년이 되더라도 언어와 용모가 속기(俗氣)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때문에 자제를 교육할 때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근실하고 올바른 사람과 놀게 해야 마침내 불초(不肖)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詩經」에,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간다”라고 하였다.

장자(張子)가, “경솔함을 바로 잡고 게으름을 깨우쳐라”라고 하였는데, 이 두가지는 특히 아이들이 경계할 것이므로, 이제 이 두가지에 본보기가 될만한 선배를 골라서 아래에 열거한다...〈童規篇〉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사소절」에서는 본이 될만한 위인들의 행실을 소개하거나 본이 되지 못하는 어른들의 행실을 경계하므로써 시범과 모범을 통한 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② 통합의 원리: 지행일치의 원리

「사소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지식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합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선비가 독서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한 언어, 한 동작에서 반드시 성현의 행동과 훈계를 이끌어 준칙으로 삼아 잘못됨이 없기를 생각

하기 때문이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일과 행실은 다 같은 것이니, 옛 글을 잘 읽으면 그 하나 하나가 오늘날 나의 일과 행실에 부합(符合)된다.

글을 많이 읽었다고 본디 일컬어진 자까지도 다소 배운 글귀를 과거 글에만 사용하고 자기 몸에는 한번도 시험하여 그 효험을 보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문장만을 한다면 비록 팔 구십세를 산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림자 구실만 할 뿐이다. 〈士典篇〉

옛날의 교육은 인륜을 가르쳤는데 후세에 와서는 글줄이나 외고 하는 풍습이 생기자 선왕(先王)의 교육방법이 사라졌다. 지금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오직 효제(孝悌)·충신(忠臣)·예의(禮義)·염치(廉恥)를 위주로 하고...〈童規篇〉

③ 흥미: 동기유발의 원리

「사소절」은 또 하나의 교수원리로 시와 노래, 춤과 같이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접근 방법을 전하고 있다.

자제(子弟)가 어릴 때부터 자질이 아름답고, 그 심지를 살펴볼 때 세속의 과거(科擧)에 관한 학문 익히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의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에 맡겨서, 어진 사우(師友)를 택해서 그를 부탁하여 학업을 성취시킨다면, 저 과거의 영리(榮利)에 비교할 때 그 경중과 대소가 과연 어떠한가?

지금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오직 효제(孝悌)·충신(忠信)·예의(禮義)·염치(廉恥)를 위주로 하고, 가꾸고 함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를 노래하도록 유도하여 의지가 발발되게 하고, 예절을 익히도록 유도하여 위(威儀)가 엄숙해지게 하고, 글을 읽도록

유도하여 지각이 트이게 해야 한다.
〈童規篇〉

(2) 학습의 원리

① 모방: 동일시의 원리

교수의 원리로 시범과 모범의 원리가 중요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원리로 모방과 동일시의 원리가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내게 비록 백가지의 장점이 있더라도 모름지기 남의 한가지 장점을 부지런히 구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한다.

남의 조그마한 장점과 착한 점을 취하여 나의 몸과 마음에 보탬이 되게 하지 않고, 매양 인격을完비한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고 탄식하는 사람은 매우 고독한 자로서 슬픈 일이다.

나이 많은 사람, 학문하는 사람, 엄정하고 바른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괴하지 말라.

언어나 행동이 항상 남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는 심분 삼가서 대해야 한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의 특이한 행동이나 재예를 듣거든 반드시 그의 성명, 주소, 용모, 연령을 소상히 묻고, 그런 사람이 다행이도 나와 같은 시대에 있음을 흠탄하며 한번 만나기를 원할 것이며...〈士典篇〉

남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보면 공경하고 사모하여 그것을 기록해 두고, 내것보다 나은 남의 좋은 글을 보면 빌려다가 충분히 보고, 혹은 적기도 하고 묻기도 하여 그 사람처럼 되기를 생각하라.

말소리나 용모에 고질된 습관이 있는 사람을

장난삼아 익혀서는 안된다. 오랫동안 흉내 내다 습관이 되면 그를 닮아서 고치기가 어렵다. 〈童規篇〉

「사소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은 적극 본받고 나쁜 점은 절대 모방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발달의 원리

① 순서와 방향: 단계적 학습의 원리

「사소절」에서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에 기초한 학습의 진행을 강조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단계적 학습의 원리를 덧붙이고 있다.

「대학」·「논어」·「맹자」·「중용」은 학문을 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계단이 일사불란하다.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할 책은 「격몽요결」·「소학」·「근사록」·「성학집요」로서, 규모가 정밀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계단이니...〈士典篇〉

② 결정적 시기: 조기교육의 원리

또한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지적하면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망아지는 길들이지 않으면 좋은 말이 될 수 없고, 어린 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재목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고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같다.

어릴 때에 반듯하게 앉는 자세를 익히지 않으면, 자라서는 뼈가 굳어져서 반듯하게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두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앉게 되고, 따라서 행동이 거칠어지며, 마음도 또한 간특

해지고, 구용(九容)²⁾이 모두 무너질 것이니,
슬픈 일이다. 〈童規篇〉

③ 개인차: 개별화의 원리

한편, 개인차에 기초하여 개별화의 원리를 적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많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숙(精熟)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자질을 헤아려서 능히 2백자를 배울 수 있는 자에게는 1백자만 가르쳐, 항상 정신과 역량이 남아둘게 하면, 실증을 낼 염려가 없고 자득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童規篇〉

어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에는 많은 분량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 금기다. 총민(聰敏)한 자가 조금만 읽어서 잘 외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거니와, 둔한 자에게 많은 분량을 읽히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갈 이치가 있겠는가?

어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에는 번거롭게 말하는 것이 가장 금기다. 모름지기 그 재품(才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상세하고 간략하게 해설해야 한다. 〈士典篇〉

이와 같은 내용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능력, 준비도, 요구수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학습 목표와 관련지음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개별화의 원리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분석의 결과

지금까지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동몽교재들을

중심으로 전통 아동교육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각 교재들마다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원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현대의 교육학과 아동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의 원리가 두루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교재별로 살펴보았던 교육의 원리를 교수의 원리와 학습의 원리, 발달의 원리로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교수의 원리는 ① 보고 들어서 귀감이 될만한 인물을 제시하는 시범과 모범의 원리, ② 전체적으로 통일된 인간적 전인적인 인격체를 기르기 위해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는 통합의 원리, ③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흥미의 원리로 집약될 수 있었다.

둘째,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학습의 원리는 ① 벗어나 스승, 성현들의 선한 행실을 거울 삼고 이를 좇아서 배우도록 힘쓰는 모방과 동일시의 원리, ②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직관의 원리, ③ 배우는 이가 학습활동에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성의 원리로 나뉘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발달의 원리는 ① 발달의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을 고려하여 ‘下學而上達’의 전제 아래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것으로’, ‘쉬운 것을 거쳐서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단계적 학습의 원리, ②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일찍부터 유가의 예절을 습득시킴으로써 자라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기교육의 원리, ③ 아동마다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하여 아동의 자질과 적성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 개별화의 원리로 요약될 수 있었다.

2) 九容: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髣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다.

첫째,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의 제반 특성과 발달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격의 확립과 완성이라는 교육의 본 목표를 향해 교수의 원리, 학습의 원리, 발달의 원리가 하나로 맞물리는 온전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교육원리를 담고 있는 전통 아동교육서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학습서나 수신서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지침서로서의 가치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셋째,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기초해 볼 때 우리의 전통 아동교육 원리는 비단 과거에만 통용되었던 빛바랜 교육방법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육에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교육원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겉으로는 전인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지식교육과 기능교육에만 매달린 채 교육부재와 교육병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밝혀놓은 효과적인 교육원리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식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이처럼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이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교육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전통사회의 교육원리를 재고해 보고 이로부터 실질적인 교훈과 타개책을 얻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가정교육의 부재, 자녀의 과잉보호, 과잉 교육열, 가족 이기주의, 지력(智力) 중심의 조기교육 열풍,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재와 같이 우리 주위에 만연된 총체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웅(1995). 아동학의 세계화. **한국아동학회 소식지**, 제7호, 1.
- 김경식(1988). **교육학개론신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성연 역(1991). **인간발달 I**. 서울: 교육과학사.
- 손직수(1994).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7-130.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방식의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모색. **세계화를 위한 한국인의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63-88.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중문사.
- 유태영·김정규(1982). **교육과정 및 학습진도**. 서울: 형설출판사.
- 이기석 역(1982). **동몽선습**. 서울: 홍신문화사.
- 이기석 역(1982). **소학**. 서울: 홍신문화사.
- 이동희 역(1982). **생활의 예절: 사소절**. 서울: 민족문화문고.
- 이민수 역(1991). **격몽요결**. 서울: 을유문화사.
- 이성진(1983). **인간학습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익(1976). **현대 교수·학습 지도법**. 서울: 장문사.
- 임창재(1994). **수업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1994).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을 때이다! 한국아동학회 소식지**, 제5호, 1.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조혜정(1992).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
삶읽기(1). 서울:또하나의 문화.
조혜정(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

삶읽기(2). 서울:또하나의 문화.
호재숙 등(1989).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교육과학사.
홍우홍 역(1988). 주자와 그 철학. 대구:영남대
학교 출판부.